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북도 제천시
- 이포봉양지역아동센터



2017. 7

성*현

2015년도에 이화봉사단을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참여였는데, 15년도에는 이화봉사단 싸이월드 클럽이 있어서 예전에 활동했던 팀들의 후기나 이전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봉사를 기획하는 데 조금 어려웠다.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5일치의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는 것이 부담되는 일이었다. 학습과 놀이를 섞어서 여러 프로그램을 짜서 센터에 갔는데 또 문제는 센터의 구조였다. 센터의 주 교실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센터 아이들과는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려워서 많이 고민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다. 센터에 짜간 여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에코백 만들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짠 후에 마지막으로 급하게 추가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해줬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다. 그리고 결과물을 실생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 같았다. 아이들과 함께한 미니운동회도 많은 변동사항이 생겼지만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을 응용한 게임에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보여줬다. 그런데 아이들과 이화봉사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재밌었지만 센터장님과 호흡이 잘 맞지 않은 것은 봉사일정 동안 많이 힘들었다. 조금 더 준비를 잘 해갈 수 있었고 센터와 호흡도 잘 맞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하게 된 봉사인 만큼 떨리고 긴장됐었다. 다른 센터와 달리 아이들의 연령대가 초3부터 고3같이 다양해서 모든 아이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새에 봉사를 가게 된 날이 다가왔다. 아직도 센터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떨림과 걱정을 잊지 못한다. 시끌벅적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 5일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여기서 새로 만나게 될 인연들에 대한 기대가 공존했었다. 또한, 평소에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 때문에 아이들과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어떻게 친해지나라는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첫날에 내가 걱정을 했다는 사실자체가 민망해질 정도로 아이들은 우리가 준비해간 프로그램들을 재미있게 잘 따라 와주어서 금세 친해졌다. 또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흐뭇함도 느꼈지만 무엇보다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 와주는 아이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웠다. 특히 내가 진행하기로 했던 '미니 운동회'가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인한 센터장과의 갈등으로 중간 진행이 미숙했었는데 아이들이 처진 분위기를 활기차게 띄워준 것을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의 에너지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준 것처럼 나도 앞으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4박 5일이 막막하고 길게만 느껴졌는데 되돌아보니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많은 것을 일깨워줬다. 게다가 이번 봉사를 통해서 5일동안 동고동락한 이화봉사단 팀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팀원들 덕분에 나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할 부분도 해결하며 더 완벽한 5일을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소중한 팀원들과 아이들 덕분에 7월 31일에서 8월 4일의 5일이 이번 여름방학에 가장 아름답고 예쁜 5일이 아닐까 싶다.

처음 센터로 갈 때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을 품고 갔다.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명찰을 달고 가는 건데, 혹여나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이들끼리 먼저 친해져있어서 내가 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준비해간 프로그램들을 무사히 잘 할 수는 있을까 등등 별별 고민들과 함께였다. 하지만 정작 도착한 센터에서 너무 밝고, 순수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 주었으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장난을 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할 때는 무안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7월 내내 고민해 간 프로그램들을 즐거워하면서 잘 따라 와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고, 특히 담당했던 과학키트 수업을 할 때 원리를 발견하며 신기해하던 모습들이 잊히지 않는다. 5일 내내 순조롭게 만든 진행되지 않았지만 의견을 조율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느새 위기대처에 능숙해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활동으로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는 것을 느꼈다.

대학생이 되어 처음 맞이한 이번 방학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선택 하라면 아마 나는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을 선택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들과 경험들을 만들어주려 간 활동에서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행복한 시간들과 추억들을 선물 받고 왔기 때문이다. 또한 함께 선생님이로 간 팀원들과 돈독해져 좋은 인연 또한 만들 수 있었다.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이 이화봉사단을 할지 말지 고민한다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만 있다면 꼭 참여해보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다.

센터 아이들의 연령대가 초등 3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다양하다 보니 아이들이 나눔지기들이 준비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재미없어하지는 않을까, 혹은 고학년들이 지루해하거나 저학년들이 프로그램 이해를 잘 못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막상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배움지기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괜한 걱정을 한 듯했다. 어린 아이들답게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서로를 챙기고 도와주며 거의 모든 활동들에 열정을 보인 배움지기들 덕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센터장과 나눔지기들의 충돌은 적지 않은 편이었다. 작게는 더운 날씨에 진행한 프로그램 이후 나눔지기들과 배움지기들 모두의 장소 재이동을 요구한 것에서 크게는 미니 운동회 프로그램 진행 시 장소 선정에 대한 문제까지 계속 말을 바꾸고 배움지기들이 준비해간 프로그램들을 무시하려 하면서까지 당신이 원하신 일들과 프로그램을 밀어붙인 센터장의 고집으로 인해 센터 선생님들이나 센터장과 실랑이를 하는 일도 있었다.

전제적으로는 만족스러운 활동이었다. 예상 시간을 고려하지 못해 두 번 정도 프로그램 사이의 시간이 30분 정도 붕 뚝던 점이나 센터와의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 답답했던 점은 있었지만 배움지기들이 나눔지기들과 빨리 친해져 같이 장난도 치며 일정을 너무 잘 따라줬던 점이 만족스러웠다.

첫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짐을 들고 우산을 쓰고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 혹시나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프로그램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기대 반 두려움 반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5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팀장언니와 팀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도 있었지만 함께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고 한층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또한 평소 학교에서 다른 과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5일내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함께 겪고 밤을 새어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롤링페이퍼를 쓰면서 착하고 좋은 동생들을 알게 되어 보람찼고 평소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나이지만 센터의 아이들과 너무 친해져서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 평평 울기도 했다. 이런 것을 하는 게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많고 어색한 부분들도 많았을 텐데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해주고 따라와 주고 우리를 좋아해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다. 5일이 짧은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너무 값지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대학교에 와서 무언가 의미있고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2학년이 되어서야 그런 활동을 한 것 같아 아쉽지만 앞으로 계속 참여하고 싶다.